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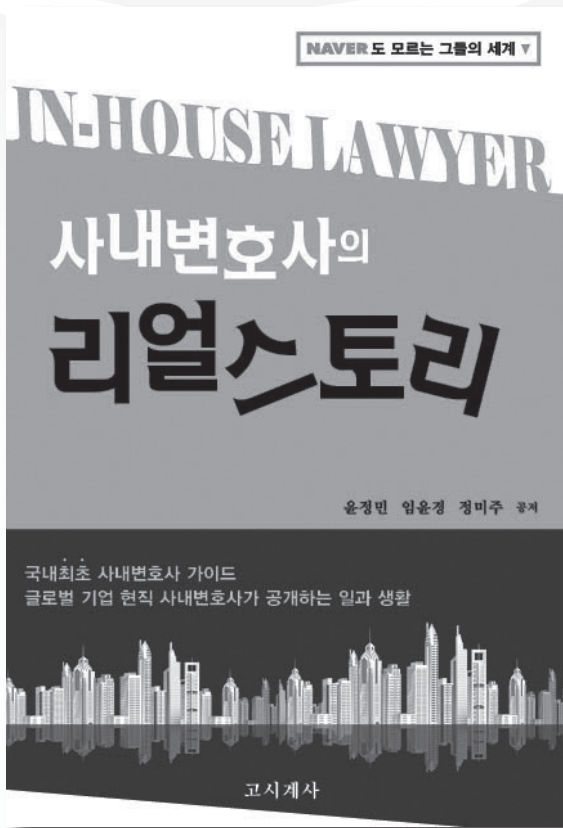
「사내변호사의 리얼스토리」ing -연재를 시작하며 (1)

▶편집자 주

앞으로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내변호사의 리얼스토리 풍경이 그려집니다.

「사내변호사의 리얼스토리」는 총 8장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장 별로 '특별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만을 엄선하여 월간 『考試界』에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독자분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에피소드]

로스쿨 시대



“앞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뽑지 않겠어”

한 회사의 팀장님이 선언하셨다. 시험삼아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뽑아봤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회사는 4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였는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후 2명의 변호사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변호사들에게 팀장님은 이러한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남아있는 변호사들은 절망에 빠졌다. 앞으로 난 로스쿨 후배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업무를 사랑하고 또 회사가 좋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1년 뒤, 그 팀에 새로운 사내변호사를 대규모로 뽑게 되자 그 자리는 모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채워졌다. 완고했던 팀장님의 편견을 깨게 만들어준 2명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로스쿨 시대가 열렸다. 매년 약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로 영역을 넓혀 나갈 무수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탄생될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 일단 수적으로 우세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사내변호사의 세계에서도 이 이야기는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스쿨 졸업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체가 없었지만 1기 합격생이 배출된 이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채용 계획이 없는 회사에도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어 그 회사에서 일하고야마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011년을 기점으로 2년 사이에 사내변호사의 숫자는 약 2배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높은 문턱에 변호사를 뽑지 못했던 수 많은 회사들이 사내 변호사 채용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회사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상장회사 중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던 회사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아니기도 하지만,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수의 확대에 힘입어 더욱 많은 곳에 변호사들이 진출을 하고있다.

이처럼 과거 사내변호사가 없던 회사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신규채용을 많이 하듯이, 이미 법무조직이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던 회사에서도 이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채용을 하고 그 후에는 마음에 들어 다시 채용을 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사내변호사 시장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단단하게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지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필자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도 이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전체 사내변호사의 절반에 육박해 가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기존 변호사 숫자를 넘어설 전망이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변호사라는 정체성에 의심을 받고, 불편한 시선을 견디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지만 이제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로스쿨 시대” 라고 말이다.

〈사내변호사의 리얼스토리〉 중 제1장 「사내변호사의 인기」 중에서 발췌한 에피소드